

배포 일시	2022. 10. 11.(화)		
담당 부서	항공정책실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국제항공과	담당자	사무관 신익승 (044-201-4211)
보도일시	2022년 10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1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김포-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 추가 확대

- 10월 30일부터 주 56회까지 증편... 양국간 항공회복 박차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30일(일)부터 김포-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그간 국토교통부는 김포-하네다 노선의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히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본 국토교통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으며,
 - 이번 증편운항은 6월 29일 김포-하네다 노선 재개(주 8회) 및 7월 25일 증편 운항(주 28회)에 대한 후속 조치로, 한-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.
 - 10월 30일(일) 이후 김포-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각 매일 2회 두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있으며, 실제 증편 운항 시점은 항공사 별로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.
 -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-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*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- * 대한항공(www.koreanair.com), 아시아나(www.flyasia.com), 일본항공(JAL, www.jal.co.jp), 전일본공수(ANA, www.ana.co.jp)

- 국토교통부는 향후 수요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김포-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 추가 확대를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,
- 최근 무비자 입국허용 발표 등으로 항공수요가 늘고 있는 기타 일본 노선 증편을 위하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